

청년·산업·대학을 잇다... 광주라이즈 성과 한자리에

5~6일 김대중센터서 제1회 성과공유회 'G-라이즈 페스타' 개최 17개 대학 참여... AI·모빌리티·문화콘텐츠 인재양성 성과 전시

광주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RISE) 사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대학 혁신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이르는 '광주형 지역혁신 모델'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제1회 광주라이즈 성과공유회 '지(G)-라이즈 페스타(RISE FESTA)'를 개최한다.

광주 라이즈(RISE)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현재 17개 지역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에너지·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산학협력, 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가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라이즈센터와 지역 17개 대학 라이즈 사업단이 공동 주관한다. 대학·기업·기관·학생·시민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된 광주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대학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공유하고, 청년 정주와 지역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광주시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실증,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대학-기업 협업 기반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와 기술 실증 과제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실습·실증 중심의 사업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라이즈 인재양성 시그니처 과제인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사업에서 ▲호남대학교의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창업동아리 성과, ▲광주대학교의 '태양전지 연동 모빌리티 총·방전 컨트롤러 파워뱅크' 개발 성과가 전시된다. ▲조선대학교는 전기차(EV)·하이브리드 전기차(HEV) 고전압 시스템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한 교육 콘텐츠를, ▲동강대학교는 인공지능(AI) 융합 드론 실물 전시와 조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연계형 예비인재양성 사업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교와 서영대학교의 고교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소개한다.

산학협력 대표 과제인 '연구 개발(R&D) 기반 혁신실증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전남대학교의 기업 기술 실증 사례



와 ▲조선대학교의 특수차량 부품 시제품 제작 성과가 공개된다. ▲광주여자대학교는 뷰티·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실증 지원 성과를 선보인다. 개막식 참석자 또는 행사장 스태프투어 완주자를 대상으로 총 5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추첨은 6일 폐막식 종료 직후 현장에서 이뤄진다. /전광훈 기자

서구, 마을자치 성장 모델 담은 '사람책'

다정한 연결로 이어온 공동체 변화·성장 과정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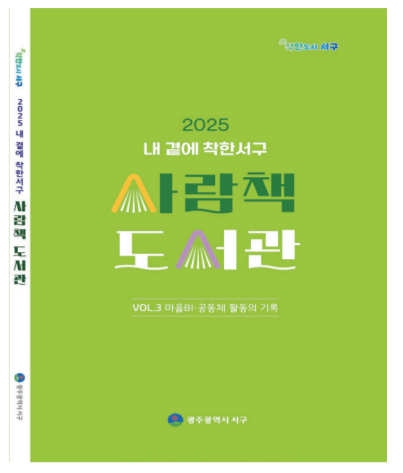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주민이 만들어 온 마을·자치공동체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기록한 사례집 『2025 내 곁에 착한서구, 사람책 도서관 Vol.3』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3년간 서구가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 정책 흐름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 온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사람책' 형식으로 엮은 기록물이다.

사례집에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구의 제도·정책 및 주민자치 분야의 사례를 비롯해 관내 18개 동에서 추진한 마을 BI(Brand Identity) 활동 및 분야별 우수사례가 담겼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공동체 성장 모델과 함께 서구 마을자치의 방향과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구는 '내 곁에 생활정부, 마을중심 자치도시'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공동체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서구는 마을의 고유한 정체성과 방향을 담은 마을 BI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체계화하고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각 마을은 생활권 특성과 주민의 삶을 반영한 마을 BI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돌봄·교육·문화·생태·환경·건강 등 다양한 마을 의제를 발굴·실천해 왔다.

그 결과 서구 곳곳에서는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가 연결되며 생활 속 나눔과 상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기관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 총망라한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합동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에는 사전에 모집된 50여 개 기업 임직원들과 현장 접수 인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며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북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한자리에... 합동설명회 열려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100여 개 한자리에서 확인 가능

올해는 북구를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KOTRA 광주전남지원단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국세청 등 17개 기관이 참여해 100여 개의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북구는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수출 판

로 지원'과 '사업화 지원' 분야 11개 사업을 설명한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2억 2천만 원) ▲광융합 무역촉진단 운영(9천만 원) ▲판로개척 바꾸쳐 지원사업(7천 5백만 원) 등이다.

행사 당일에는 지원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기관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

하고 통합 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관계자, 주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중소기업지원과(☎062-4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지원사업과 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우리 고유의 전통 장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월말에 개최하는 '제16회 전통 장 담그는 날' 체험 행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제16회 전통 장 담그는 날 체험 행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압촌동 광주 공중합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구청에서 광주 공중합센터 운영을 위탁한 유한회사 압촌공매주장 문화진흥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남구 "메주로 장 담그고, 두부도 만들어요"

28일 공중합센터에서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

등 3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통 장 담그기와 두부 만들기 2종류이다.

전통 장 담그기 분야 모집 인원은 200명이며, 참가자들은 이날 메주 2량이에 해당하는 된장 4kg을 직접 담그는 체험에 나선다. 체험 비용은 6만원이다.

체험객이 만든 전통 장은 발효 과정 등을 거쳐 오는 7~8월 사이에 각 가정에 배송하거나, 본인이 광주 공중합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두부 만들기 분야에서는 50명을 모집한다. 소형 두부는 당일 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신청서 접수는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체험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광주 공중합센터(☎385-0445) 또는 남구청 민생경제과(☎607-2741)로 전화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통 장 문화의 부흥과 함께 발효 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건강 효능을 배우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을 찾아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특례조항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도의회 동의로 이제 행정통합까지는 '국회의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상임위 심사와 정부 부처와의 특별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특별법안을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법안은 통과되며 정부 이송과 공포,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가 이어지게 된다.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

이 분리된 지 40년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기동취재부

☎062-525-9775

합평군 공고 제2026 - 99호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합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호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월야면 월야리 소로 1-902	소로 3-902	도	제1800-15호(1800. 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소로 3-902	도	제1800-15호(1800. 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선형변경 - 기정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만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소재 : 계제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